

친환경차 질주 저유가에도 판매량 속속



기아차 쏘울 EV

현대차 LF쏘나타 하이브리드 1분기 판매 작년비 181% 급증 수입차도 60% 가까이 늘어...하반기 잇단 신차 출시 시장 성장

저유가 기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등 국내 친환경차 시장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산 및 수입차 가운데 친환경차는 총 9640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8% 늘어났다.

특히 현대차 LF쏘나타 하이브리드는 이 기간 총 3321대가 판매돼 지난해 같은 기간 YF쏘나타 하이브리드 실적(1179대)보다 181.7% 급증하며 전체 하이브리드차 판매를 이끌었다. 이에 따라 현대차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합쳐 총 5831대의 친환경차를 판매해 국내 친환경차 점유율 60.5%를 기록했다. 다만, 기아차 K5와 K7 하이브리드는 모델 노후화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40.6% 감소한 1657대 판매에 그쳤다.

친환경차 시장에서는 수입차들도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올해 1분기 수입 자동차는 하이브리드차 2023대, 전기차 44대 등 총 2067대가 팔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9.7%의 높은 성장률을 나타냈다. 친환경차 시장에서 수입차의 점유율도 지난해 13.5%에서 올해 21.4%로 크게 증가했다. 전기차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전기차는 지난해 1분기에 133대가 팔리는데 그쳤으나 올해 1분기에는 267대로 100%가 넘는 성장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부터 제주도 등 자치단체 주관하에 전

기차 공모사업이 펼쳐지면서 소비자들이 낮은 가격에 전기차를 구입할 수 있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전기차 시장에서는 기아차가 올해 1분기 150대를 판매해 이 시장의 56.2%를 차지했다.

하반기로 갈수록 다양한 친환경 신차 출시가 예정돼 있는 만큼 판매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차가 올 하반기에 쏘나타 플러그인 하이브

리드(PHEV)와 준중형급 하이브리드 전용모델을 출시하는 것을 비롯해 기아차도 신형 K5 하이브리드를 출시할 예정이다.

수입차업체들도 PHEV 모델을 잇달아 내놓으며 친환경차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지난 3월 26일 BMW코리아가 출시한 PHEV 스포츠카 i8은 2억원에 육박하는 차량 가격(1억 9990만원)에도 한달여 만에 사전계약 대수가 190대를 넘어섰다. 또 PHEV 모델인 폴크스바겐 '골프 GTE'와 아우디 A3 스포트백 e-트론 등도 연내 국내 시장에 상륙할 준비를 하고 있다. /연협뉴스



LF 쏘나타 하이브리드

1분기 글로벌 판매, 도요타 252만대 1위 수성

249만대 판매 폴크스바겐 2위

3위 GM...빅3 선두경쟁 가열

현대·기아차 작년비 3.2% 줄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수요가 늘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업체 간 선두다툼도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최근 자동차산업연구소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도요타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감소한 252만대를 팔아 249만대를 판매한 폴크스바겐을 불과 3만대 앞서며 1위를 유지했다.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대 판매를 돌파하며 3년 연속 연간 판매량 1위를 차지했던 도요타는 지난해에도 폴크스바겐을 9만대 차이로 앞선 바 있다. 미국의 제너럴모터스(GM)는 올해 1분기 242만대의 판매량을 올리며 3위

를 기록했지만, 2위와 격차는 7만대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현대·기아차는 올해 1분기에 현대차 118만대, 기아차 75만대 등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2% 감소한 총 193만대를 판매해 선두권에서는 뒤처진 상황이다.

도요타는 엔저 등을 바탕으로 미국 시장에서 승승장구하고 있다. 도요타의 소형 SUV 라브4는 올해 1분기 미국 시장에서 판매가 26% 급증했고 렉서스 NX 역시 판매 호조가 이어지며 전체 판매량은 10% 가량 늘었다. 도요타는 엔화 약세와 북미 판매 호조에 힘입어 최근 연구개발(R&D) 투자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기아차도 판매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판매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대·기아차는 올해 글로벌 판매 목표를 현대차 505만대, 기아차 315만대 등 총 820만대로 잡은 상태다. /연협뉴스

브레이크 호스 조립 불량

르노삼성 QM3 2만대 리콜

브레이크 호스 조립불량이 발견된 르노삼성자동차 QM3 2만여대와 차문 잠금장치 결함이 발견된 포드사의 토러스·MKS 5000여대가 리콜된다.

4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QM3승용차는 브레이크 호스 조립 문제로 호스가 마모되고 브레이크 오일이 흘러 제동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발견됐다. QM3 리콜대상은 2013년 9월11일부터 2014년 11월7일까지 제작된 2만949대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가 수입한 토러스·MKS 승용차는 차문 잠금 스프링 장치 결함으로 차문이 정상적으로 닫히지 않거나 주행 중에 열릴 가능성이 발견됐다. 리콜대상은 2009년 12월1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제작된 토러스 4958대, 2011년 6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제작된 MKS 45대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짐 싣는 ‘경차 밴’ 인기

1분기 기아차 모닝 밴·레이 밴 판매량 늘어

경제성·기동성·적재공간 갖춰
소상공인들 중심 꾸준한 수요

뒷좌석을 떼어내고 짐을 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경차 밴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최근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아차의 모닝 밴과 레이 밴은 각각 1195대와 548대가 판매됐으며 한국GM의 스파크 밴은 358대가 팔렸다.

같은 기간 일반형을 포함한 모닝, 레이, 스파크의 판매는 각각 2만843대, 6220대, 1만 3095대로 밴의 판매 비중은 모닝이 5.7%, 레이는 8.8%, 스파크가 2.7%를 차지했다. 모닝 밴의 판매 비중은 지난해 1분기 5.6%보다 0.1%포인트 늘었고 스파크 밴의 판매 비중도 2.2%였던 지난해 1분기보다 0.5%포인트 증가했다.

레이 밴은 모닝 밴과 스파크 밴보다 천장이 높은 스타일로 적재공간이 1.5배가량 넓어서 밴의 판매 비중이 3개 차종 가운데 가장 높다. 레이 밴의 판매 비중은 지난해 1분기 28.8%에서 올해 1분기 8.8%로 줄었으나, 이는 지난해 초 법인용 차량의 대량 구매가 있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뒷좌석에 짐을 싣고 다닐 수 있는 경차 밴은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다소 생소하지만 경제성과 기동성, 적재공간의 3박자를 갖춰 소상공인들과 법인사업자들로부터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배달을 주로 하는 업종 가운데 이륜차보다 안정적인 적재공간이 필요한 꽃집이나 떡집 등 소상공인들이 경차 밴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사업자들도 각종 부품이 필요한 AS 업무 등을 위해 경차 밴을 구매하고 있다.

경차 밴은 차량 구매 때 취득세 및 채권 구입 면제, 고속도로 통행료·혼잡통행료·공영



기아차 모닝 밴·레이 밴 뒷모습. <구글 이미지>

주차료 각각 50% 감면 등 경차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다, 차체가 작아 복잡한 도로 환경에서도 운전이 편리하다.

가격도 일반 모델의 최저사양 모델보다 저렴한 편이다.

모닝 밴은 일반형 915만원, 고급형 950만원으로 955만원부터 시작되는 일반모델보다 5만~50만원 가량 가격이 낮다. 레이 밴도 일반형 1163만원과 고급형 1213만원으로 1281만원부터 시작되는 일반모델보다 68만~118만원 싼 편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경차의 경제적 장점을 누릴 수 있는데다 주차의 불편함도 덜 수 있어 배달을 직접 하는 여성운전자들의 수요가 꾸준한 편”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자동차, 이것이 궁금해요

에어컨 풍향 얼굴·발 방향으로 맞춰주세요

Q)에어컨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팁(TIP)은 없나요?

전문가 의견) 내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는 차문을 열어 차 내부 온도를 일정 정도 떨어뜨리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 후 에어컨을 작동할 때 가급적 얼굴과 발 방향으로 풍향을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냉매는 에어컨을 켜지 않아도 시간이 경과하면 자연 감소하니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전한 운행을 위해 에어컨 사용시 아무리 더워도 1시간에 10분 정도는 환기를 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기아차 광주서비스센터>

광주일보 작은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독자서비스국 062.220-0551

토담
광산구 비아소방서와 흥흥파크사이 병어조림, 갈치조림, 이구찌, 홍어찜, 회무침 전문(계절별)
대표 김광수 ☎062)954-1333

오리백년두암직영점
북구 두암동 에덴병원 건너편 오리한방, 백숙, 오리생고기, 주물럭, 오리웃닭, 오리 장어탕
☎062)401-5253

일등모바일
동구 금남로 2가 7-4 (구)동구청 1층 핸드폰·악세사리 도매 전문점
☎010-4655-9689

송하한정식
동구 금남로 2가 10번지 청국장, 가마솥육개장 한정식, 백반전문
☎062)225-9278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 (중랑로 196번길 15-16) 예술의거리 중앙초교사거리에서 카톨릭센터쪽 30M 이전 확장개업
대표 임택택 ☎010-2681-3113

보성존제산일월사포교원
북구 두암동 561-5출플러스건너편 광주은행건물 4층 인혜, 풍수, 사주연구소 연구원
원장 이성호 ☎010-8278-0030

광주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동·서양화 매매 및 무료감정 고급표구 제작판매
대표 박중환 ☎062)232-4784

박당화랑
동구 공동 51-18번지 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 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062)222-6866

석당화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 위탁판매
대표 이석재 ☎062)222-3118

늘부부대찌개문화전당점
동구 광산동 56-1 (번지유상실업) 부대찌개, 철판구이
점장 최은진 ☎062)222-9290

그린이용원
북구 양산동 오리공영이 뒤
대표 성욱희 ☎010-3225-2735

신신예술의집
동구 공동 예술의거리 기념품 전문 판매점
대표 서태석 ☎062)222-1936

똥이레
동구 대외동 10-1 바다장어, 찜닭, 불장어, 사브사브, 돌관볶음, 소금구이, 양념구이, 계절떡국
대표 윤영희 ☎062)234-7949

고전방
동구 금동 34-4 (중앙초등학교 후문) 도자기, 서양화, 고서화 전문판매점
대표 김화중 ☎062)224-4869

광주척추교정원
광주 동구 계림동 마시골 건너편 2층 카이로프랙틱, 신경질환, 목, 허리디스크 협착증, 사지관절, 손발저림, 전신경락
☎010-8827-7799

아워홈테크
북구 우산동 617-10 문화중학교 담도로 한샘iK제휴점 아파트, 주택, 리모델링 abs도어 연동용 씽크대 불박이장
대표 김창두 ☎010-6635-7224

27번가
동구 중앙로 196번길 27 (구)동구청 뒤 흥연바베큐, 기계맥주 조용히 즐길 수 있는 쉼터
☎062)223-2727

토산철학원
북구 두암동 에덴산부인과 정문옆 직영, 개명,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상호명 개인지도합
대표 이태연 ☎010-4106-5055